

서도호:

한 채, 또는 여러 채의 집'

DO HO SUH: ONE OR SEVERAL HOUSES¹

목차:

1.0. 예비조사 / 2.0. 작업범위 / 3.0. 공정표 /
4.0. 부록 (주석)

공정표는 건축가들이 건축 프로젝트의 요소를 항목별로 작성하는 데에 쓰이는 문서이다.

공정표는 중립적인 어조로 작업의 질이 아닌 수적인 면을 서술한다. 건설 업자는 주로 공정표를 사용하여 공사 비용을 산출하기 때문에 공정표는 건설 공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따라서 공정표는 종종 드로잉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공정표는 대개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전체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기본적 지반조사인 '예비조사,' 작업 규모의 개요와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제외되는지 서술하는 '작업범위,' 그리고 앞서 말했듯 건축 프로젝트의 모든 면을 항목별로 적은 공정표가 있다. 필요하다면 여기서처럼 부록을 추가로 달기도 한다.

Contents:

1.0. Preliminaries / 2.0. Scope of Works /
3.0. Schedule of Works / 4.0. Notes

A Schedule of Works is a written document that Architects use as a way of itemising elements within a building project.

A Schedule of Works is written in a neutral voice that describes the work quantitatively, not qualitatively;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a building project, since a building contractor will primarily use the Schedule for calculating the value of the works to be done. In this respect they are often seen to be more important than the drawings themselves.

The Schedule usually consists of three parts: the "Preliminaries," which take into account general conditions that apply to the whole project; the "Scope of Works," that outline the "extent" of the work and what is to be included and what is excluded; the "Schedule of Works"

이 글은 건축가의 시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쉽게 경시되는 건축적인 글쓰기를 모방하여 이를 예술과 건축 작업을 구분하는 비평적 도구의 일부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쓰인 형식은 공정표의 개념을 고찰하며 이를 사색적인 글쓰기에 이용한다. 글에서 느껴지는 거리감은 의도된 것이나, 서도호의 작품 설명에서 필자와의 협업관계가 분명 드러날 것이다.

1.0. 예비조사

“Do Ho Suh’ 구글 이미지 검색 결과 약 72, 500개 (0.44초)”²

필자는 미술 비평가도, 미술사학자도 아니며 심지어 건축 비평가나 건축사학자도 아니다. 필자는 전문 건축가로서 건축을 가르치는 사람이다.³

서도호의 작품들 중 다수는 ‘건축적’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서도호는 건축가가 아니다.

건축사학자 로빈 에반스(Robin Evans)는 ‘드로잉을 건물로 번역하기(Translations from Drawing to Building)’라는 글에서 예술가와 건축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술가들은 ‘어떤 것’ 자체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작업하지만 건축가들은 대개 드로잉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⁴

서도호의 작품들이 건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이들이 건물, 방, 층계, 정문, 세부 양식 등 건축적인 형태나 공간을 소재로 삼았다는 뜻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작품들이 건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재료의 사용법과 형태, 어떤 특정한 요소나 주제를 다루는 방식, 이들이 전시장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과 전시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에서 드러나는 작품의 조각적인 면모를 간과하는 것이다.

이 작품들을 건축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왜 이들이 건축이 아닌지를 회피하는 것이다.

한 건축가는 예술과 건축의 차이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건축가는 그의 구조물에 기꺼이 변기를 설치할 의향이 있다.”⁵ 서도호의 작품 중 몇몇에서 변기를 찾아볼 수 있지만 이는 사용 가능한 변기가 아닌, 부드러운 변기이자 변기 조각이다. 또한 그것들은 배관이 되어있지 않으며, “분수”도 아니다.⁶

어떤 건축을 조각적이라고 일컫는 것은 종종 치밀하지 못하다거나 형태에만 집중했다는 뜻을 내포하는

itself, which is an itemised list of every part of the building project. An Appendix of “Notes” can also be added as it has here.

Since the essay was written from the point of view of an architect it was decided to “imitate” a form of architectural writing, especially one that is often unknown or ignored, as part of a critical tool to differentiate between art and architectural practice. However the format used plays with the Schedule of Works concept and uses it as speculative form of writing. While a sense of detachment is alluded to, the complicity of the author in the description of Do Ho’s work is clearly acknowledged.

1.0 Preliminaries

“Google image search ‘Do Ho Suh’ About 72,500 results (0.44 seconds)”²

I am not an art critic, I am not an art historian, I am not even an architectural critic or an architectural historian; I am a qualified architect who teaches architecture.³

A number of Do Ho Suh’s works are often referred to as “architectural,” but Do Ho Suh is not an architect.

The Architectural Historian Robin Evans in his essay “Translations from Drawing to Building” remarks that the main difference between an artist and an architect is the fact that artists tend to work directly on the “thing,” whereas architects tend to work through an intermediary, usually a drawing.⁴

It could be argued that to say that these works are architectural simply means that they are about architectural forms and spaces: buildings, rooms, stairways, facades, details.

However to say these works are architectural is perhaps to diminish the extent to which they are sculptural in their use of material and form, the working through of certain elements and themes, the fact that they are installed in a gallery and the way they use the gallery space.

To call these works architectural is to avoid why they are not architecture, and perhaps why they are better for it.

An architect once said that the only difference between art and architecture is that “the architect is willing to put a toilet in his structure.”⁵ There are toilets in some of Do Ho Suh’s work, but they are not functioning toilets; they are soft toilets, sculptures of toilets.

모욕이다. 이는 마치 어떤 것을 패셔너블하다고 묘사하는 것이 모욕인 것과 같은 원리인데, 왜 이 단어들만 그런 식으로 여겨지는지는 알 수 없다.

서도호의 작품은 형태적이며 치밀하다. 또한 패셔너블하고 이에 더불어 매우 아름답기까지 하다.

많은 국가에서 '건축가'는 법으로 보호 받는데, 대개의 경우 이는 건축가들이 전문적인 행동규범에 맞추어 시공하도록 하고 필수적인 전문 지식을 소지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와 같이 보호 받는 직종은 종종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그 직업 자체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더 많이 이용된다.

'예술가'를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서도호의 작업과정은 그의 작품보다 더 건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서도호의 작품 하나를 전시하기까지의 과정은 건축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과 비슷하다.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서 시작하여 이를 발전 및 구체화시킨 뒤 그 아이디어를 의뢰 받고 갤러리나 미술관과 협력하여 제작 준비, 제작 인원 조직, 작품의 완성도 확인, 운송, 설치, 안전위험성 평가 서류 작성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이메일, 팩스, 전화 통화가 오고 간다. 건축과 마찬가지로, 전체 과정에 비추어 보면 아이디어 자체는 정말 작은 부분처럼 여겨진다.

서도호의 작품은 매번 다른 장소에 맞게 설치되지만 엄격하게 장소 특정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그 장소들은 특정한 장소이며, 또한 개인적 장소이다.

2.0. 작업범위

리움에 전시되는 서도호의 작품들 중 대부분은 한국의 본가, 학생 시절에 살았던 로드 아일랜드의 타운 하우스, 작가의 뉴욕 아파트 등 작가가 거주한 적이 있는 다양한 주거 공간을 시작점으로 삼는다. 그의 작품에서 이 건물들은 그 전체 또는 일부가 전형(archetypes)으로 사용되지만 이들은 아주 보편적인 것—한국식 집, 미국식 집, 미국식 아파트—의 기표인 동시에 아주 구체적인 것—서도호의 서울 본가, 서도호의 로드 아일랜드 학생 주택, 서도호의 뉴욕 아파트—의 기표인 특이하고 모순적인 방식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 명백한 모순은 서도호의 작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주택(house)과 집(home)이라는

They are not plumbing, and they are not even "fountain's."⁸

In architecture to call something sculptural is often meant as an insult, implying that it lacks rigour and is merely interested with form, in the same way that calling something fashionable is also considered an insult, although it is difficult to know why either term should be seen in that way.

Do Ho Suh's work is formal and rigorous. It is also fashionable and, incidentally, very beautiful.

In many countries the term "architect" is protected by law. This is usually done to try and make sure that architects operate in accordance to a professional code of conduct and to protect the public from those who do not possess the required professional knowledge. Unfortunately this is not always the case. The use of protected title often does little to safeguard the public interest and does more to protect the vested interest of the profession itself.

It is noticeable that there have been very few calls for the term "artist" to be protected by law.

It could be argued that Do Ho Suh's practice is more architectural than his artworks. The processes involved in getting one of Do Ho's pieces to the point of exhibition are analogous to the processes involved in a building project: from having the idea, the working out of the idea, getting the idea commissioned, liaising with a gallery or a museum, the preparation for fabrication, organising people to make the pieces, checking the quality of the work, arranging the transport of the work, installing the work, filling in Health and safety risk assessments, the countless emails, faxes and telephone calls involved along the way. As with building, the idea itself seems such a small part of the overall thing.

Do Ho Suh's works are not strictly site specific, although every time they are installed they are specific to that site; but they are specific sites and personal sites.

2.0. Scope of Works

The majority of Do Ho Suh's works exhibited at Leeum use as a starting point various domestic spaces that Do Ho has lived in: his family home in Korea, the town house in Rhode Island where he lived as a student, his apartment in New York. Throughout his work these building are used

단어를 쓰는 방식의 핵심이다. '주택'은 대개 매우 보편적인 형태의 건물을 가리키는 반면 '집'은 실상 '주택'과 같은 건물일지라도 매우 특정한 의미를 가진다.

주택이라는 단어는 물론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집은 더욱더 그러하다. 집은 유년 시절의 분홍빛 추억을 상기시키며 서도호의 설치물은 그 몽롱한 흐릿함을 활용한다.* 그의 작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며 주택-집은 공포와 불안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언캐니(uncanny)'로 주로 번역되는 프로이트의 용어 '온하임리히(unheimlich)' 즉, '집 같지 않은(unhomely)'이 내포하는 의미이다. '언캐니'는 최근 들어 건축 이론에서 유행하는 용어가 되었다.*

주택은 항상 집합적이다. 절대 단수가 아니며 항상, 이미 다수이다. 한 건물은 한 사람에게도 많은 주택들, 집들일 수 있다.

'집(house)은 주거를 위한 기계이다.'" 이 기계는 큰 기계인가 작은 기계인가? 예로직한 기계인가? 주택은 하나의 집합체이지만, 이것은 다수인가?

'미국을 위한 집'에서 미국 교외의 규격형 주택을 집합체로 고찰한 댄 그레이엄(Dan Graham)은 내내 차갑고 반어적이며 거리를 유지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레이엄은 자신과 어떤 감정적인 관계가 있는 곳이 아닌 집이라는 개념, 박제된 집을 보았던 것이다. 서도호는 주택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택의 파편들까지도 하나의 집합체로 여기지만 그의 작품 속 미세한 디테일에는 작가가 이 공간들과 관련이 있다는 느낌이 깃들여 있다. 이들은 어쨌든 모두 서도호의 집이기 때문이다.

서도호의 조각은 대상으로서 아름답게 만들어졌으나 이 아름다움은 관람자에게 단번에 나타나지 않는다. 조각의 아름다움은 실재하는 사실로 다루어진다.

서도호의 작품에 관련된 여러 기사와 전시평을 읽으면서 필자는 같은 이미지와 같은 단어들—기억, 여정, 이주, 정체성 등—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했다. 많은 필자들이 그들 자신의 기억, 자신의 개인적인 여정, 이주,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집중한다. 서도호의 작품을 구성하는 재료들의 일시성은 관람자로 하여금 그의 작품이 마치 자신의 공간인 것처럼 여기게 한다.

either whole or in part as archetypes, but they are used in an unusual and paradoxical way, as they are at one and the same signifiers of something very general, the Korean house, the American house, the American Apartment, and something very particular, Do Ho's family house in Seoul, Do Ho's student house in Rhode Island and Do Ho's New York apartment.

However, this apparent anomaly is not just confined to Do Ho's work; it is an essential part of the way we use the words house and home. The term "house" usually denotes a very general type of building, whereas "home" connotes something very particular, even when they are in fact the same building.

The word house is of course loaded, the word home even more so. Home brings up rose-tinted reminiscences of childhood*, and Do Ho's sculptures play on that haziness; they can be what "we" want them to be.

Of course the opposite is also true and the house-home can be a site of terror and anxiety, most famously captured in Freud's term the "unheimlich," or unhomely, though most often translated as the uncanny. The uncanny has become a buzzword in architectural theory.*

A House is always a multiple; a house is never singular but always already many. One building can be many houses, many homes, even to the same person.

"The House is a machine for living in", but is it a big machine or a little machine? Is it an erotic machine? Even though a house is a multiple, is it a multiplicity?

Dan Graham in his *Homes for America* looked at the American suburban tract house as a multiple, but the work was delivered with a cool ironic detachment"; Graham was not looking at homes that he had any emotional relationship to, but an idea of home, the home reduced to taxonomy. Do Ho Suh deals with the house as a multiple, even the fragments of the house as multiples but in the minutiae of the detailing there is the sense of an engagement with these spaces. These are after all his homes.

Do Ho's sculptures are beautifully made as objects but in a way that is perhaps not immediately apparent to the viewer. Their beauty is treated as fact.

I look through articles and reviews and I am confronted with many of the same images and

서도호의 작품은 주거가 가능할 만큼 견고하면서도 관람자가 공간의 특정성에 얽매한다고 느껴지 않을 만큼 비물질적이다.

어쩌면 서도호의 작품은 기억 그 자체보다는 기억의 속임수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지도 모른다. 그의 작품은 우리가 어떤 사물, 공간, 우리의 주택과 집에 대해 기억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다.

3.0. 공정표

3.1. 투영

파란 폴리에스터 천(polyester mesh)으로 만들어진 실제 크기의 한옥 문 2개는 기초부분을 축으로 상하로 반사되면서, 전시장 벽에 고정된 수평 천에 의해 나누어져 있다. 이 작품은 공중에 매달려 있어서 관람자는 아래쪽의 뒤집어진 문 밑을 걸으며 올라다 볼 수 있다.

‘투영’은 트롬프뢰유(trompe l'oeil)의 반전에 의존함으로써 관람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눈속임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만약 우리의 직접적인 감각이 이렇게 쉽게 의심에 넘어갈 수 있다면 우리의 기억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3.2. 뉴욕 웨스트 22번가 348번지 - 아파트 A호, 복도, 계단¹⁴

이 작품은 연한 하늘색 아파트와 분홍색 복도 및 계단,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부분은 작가의 뉴욕 아파트를 실제 크기의 ‘모형’ 한 개로 세밀하게 복원·구성한 것이다.

이 작품을 분류하려 할 때 ‘모형’이나 ‘재건’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어쩌면 조각이라는 말이 가장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딱딱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물체가 수작업의 부드러운 형태로 구현되는 데서 오는 모순은 흥미로우면서도 당황스럽다. 그러나 각각의 세부와 부분들에서 보여지는 치밀함과 섬세함은 역시 놀랍다. 투명한 벽, 부드러운 번기, 놓여진 전기 스위치, 흐물거리는 찬창 등 이 물체들의 기능은 퇴화되었고 그 성질은 전도되었으며 변태적이기까지 하다.

the same words of memory, journey, displacement, identity. Many of the authors concentrate on their own memories, their own personal journeys, their own displacement and their own identity. Through the ephemerality of the materials that these works are constructed from, viewers can inhabit them as their own spaces. They are solid enough to make this possible and yet insubstantial enough so that the viewers do not feel bound by the specificity of the space.

Perhaps Do Ho's works are not about memory as much as the tricks memory plays. They are about what we think we remember about things, about spaces, about our own houses and homes.

3.0. Schedule of Works [Selected]

3.1. Reflection

Two full size replicas of a Korean gate constructed from blue polyester mesh are reflected around their base, and divided by a horizontal mesh surface fixed to the gallery walls. The piece is suspended within the space so that the viewer walks below the lower inverted gate and looks up.

Reflection relies on an inversion of trompe l'oeil. The viewer thinks that they are looking at a trick but instead they are actually seeing what they think they are seeing. The piece reminds us that if our immediate senses can be so easily thrown into doubt, how much can we rely on our memories?

3.2. 348 West 22nd St, New York, NY 10011, USA - Apt. A, Corridor and Staircase¹⁵

The piece is made in two parts: the apartment is coloured pale blue, and the Corridor and Staircase is pink. Together they create a single detailed “model” of the artist's apartment in New York reconstructed at full-size.

In trying to categorise the piece the word “model” does not seem appropriate but words like “reconstruction” do not seem adequate either. Perhaps the word sculpture actually works best.

The delicacy with which the individual details and components of the house are constructed is astounding, although the incongruity of hard mass-produced objects being realised as soft handmade forms is both fascinating and disconcerting. Translucent walls, a soft toilet, a floppy light switch, limp cupboards, etc., the functionality of these objects is rendered obsolete and their nature is inverted, even perverted.

3.3. 서울 집/서울 집¹⁹

이 작품은 작가의 본가를 재현한 철제 지지구조와 연초록빛 비단으로 천장에 매달려 있다.

이 조각은 유령처럼 보인다. 아니, 약간 괴기스러워 보인다. 작품의 원형이 되는 주택의 디테일은 실크의 표면에 수놓여져 있다. 이 작품은 서도호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인 낙하산처럼 보이기도 한다.

3.4. 청사진²⁰

파란 폴리에스터로 된 뉴욕 아파트 전면의 모형이 전시장 내에 실제 크기로 재현되어 있다.

우리는 전면을 평행적인 투사로 경험하지 않고 원근법적인 시점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직각으로 투사된 건물 전면은 언제나 생소하게 느껴진다. 수평적인 전면은 드로잉, 평평히 투사된 영상, 그리고—비록 납작해져서 모형보다는 부조에 가깝지만—실제 크기의 정교한 모형 사이에서 작용한다. 작품은 전시장 안에 위치하면서 더 낮설어지고, 관람자의 머리 위에 떠있는 건물 전면은 그 건물의 크기와 규모를 이해하게 만드는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표본 시리즈**3.5. 뉴욕 아파트 복도****3.6. 베를린 집 복도**

가정용품과 건축적 철골 구조물 여럿이 폴리에스터 천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들은 각각 위치했던 주택과 같은 색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상점의 진열대 같은 ‘진열 패널’에 들어 있다.

이 작품들은 폴리에스터 천의 정교한 디테일을 보여준다. 종종 건축가의 역할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인데, 이 ‘특정화(specification)’ 작업은 건축가의 역할 중 거의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다.

3.7. 별동별 - 1/5

이 작품은 한옥 모형과 미국식 타운 하우스 모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옥은 타운 하우스와 충돌하여 두 층을 뚫고 한 모서리에 박혀 있고, 타운 하우스는 대각선으로 잘려서 내부가 밖으로 드러나 있다. 잘려진 두 면은 받침대에 걸쳐 있어서 이동이 가능하다. 한옥에는 낙하산이 매달려 있는데 이 낙하산은 바로 그 한옥의 모양을 하고 있다.

3.3. Seoul Home / Seoul Home¹⁹

The piece is a recreation of the artist's family home, made of pale green silk and supported by a metal armature; the sculpture hangs from the ceiling.

The sculpture looks like a ghost, or rather looks ghostly, details of the original house are stitched onto the surface of the silk. It also looks like a parachute, another recurring theme in Do Ho's work.

3.4. Blueprint²⁰

A full size reproduction of the New York Apartment Building façade is recreated in the gallery in blue polyester.

Seeing an orthographic projection of the façade within the gallery seems a little strange, since we never experience façades as parallel projections only through a perspectival point of view. The work operates between a drawing, a flat projection, and a full scale detailed model although the modelling is flattened so that it is more of a relief. Through its positioning within the gallery space the work achieves a further level of estrangement and to have the façade looming above the viewer offers a fascinating opportunity to understand measure and scale of the building.

Specimen Series:**3.5. Corridor, 348 West 22nd Street, New York, NY 10011, USA****3.6. Corridor, Wielandstr. 18, 12159 Berlin, Germany**

A series of domestic artefacts and architectural ironmongery are constructed using polyester mesh. They are colour coded to denote the house series from which they originate, and these are presented as “display panels” as if part of a shop display.

These pieces demonstrate the exquisite precision of the polyester mesh details. The role of an architect is often to “select” products, this act of “specification” is one aspect of the architect's job that rarely gets mentioned.

3.7. Fallen Star - 1/5th Scale

The piece consists of model of the traditional Korean house and the American town house where the Korean house has crashed through two floors of the town house and sits cantilevered

이 작품은 한 쪽에서 보면, 비교적 정상적인 실내 공간과 놀랍도록 정교한 디테일을 가진 거대한 인형의 집 같고, 다른 쪽에서 보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재난 영화의 세트장 같다.

이번에 출품된 <별동별 1/5>에서 두 문화를 상징하는 건물들이 충돌하는 관계로 나타나는 것은 흥미롭다. 이는 보다 최근에 제작된 <별동별>에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¹⁹

3.8. 집 속의 집 - 1/11 - 프로토타입

전통 한옥이 미국식 타운 하우스 안에 놓여있다. 두 주택은 합성수지로 모형을 층층이 인쇄하여 3차원으로 출력하는 과정인 스테레오리토그래피 (stereolithography)를 사용하여 만들어졌다. 작품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부분은 철골 구조 위에 놓여있어서 함께 전시되거나 이동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작품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매혹적으로 빛난다.

이 작품은 단일한 재료로 만들어져서 무엇인지 한번에 알아보기 어렵다. 처음에는 대상 자체의 유혹만이 존재하다가, 꼼꼼히 관찰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두 건축의 차이점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한다.

3.9. 문

폴리에스터 천으로 된 한옥 대문 스크린이 전시장 가운데에 서 있다. 극사실적인 대문 이미지부터 조금 더 추상적인 장면들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미지와 애니메이션 영상이 스크린에 투영된다.

이 작품을 사진으로 밖에 보지 못한 필자는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보았다. 광고를 건너뛰기 위해 5초를 기다리면서, 내가 작품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 작품을 찍은 영상을 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필자가 좋아하는 건축물들 중 실제로 보지 못하고 사진이나 드로잉으로만 아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3.10. 완벽한 집: 다리 프로젝트

다리 한 가운데에 한옥이 놓여있다. 다리의 양 끝은 보이지 않는다. 건물은 전통 한옥이다. 관람자는 이 다리가 한국에서 미국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엄청난 수준의 기술과 재료를 요하는 작업임을 깨닫는다. 다리의 역할이 분디 갈라진 것을 이어주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

from one of its corners. The American House is cut diagonally across with the interior spaces exposed. The whole model is mounted so that the two halves can be moved. Trailing from the Korean house is a parachute; it is a parachute in the shape of the Korean house itself.

From one side the piece is like highly intricate doll's houses at an epic scale, showing relatively normative interiors with a level of detail that is extraordinary, from the other it is like a stage set from an improbable disaster movie.

It is interesting that in this version of the work the buildings that represent the two cultures have such an aggressive relationship. This is not the case in a more recent variation.¹⁹

3.8. Home within Home - 1/11th scale - Prototype

A traditional Korean House is placed inside an American town house; a model of the two houses is made in resin using stereolithography, a process which builds the model up layer by layer, the model is divided into four parts, the parts are placed on metal frames so that they can be moved together or spaced apart. The model is lit so that it glows alluringly.

The single material makes the different architectures initially difficult to recognise. At first there is only the seduction of the object itself and then with time and careful scrutiny the differences in the architectures begin to become apparent.

3.9. Gate

A polyester mesh screen with a replica Korean arch sits in the middle of a gallery, images and animations are projected onto the screen, from a photorealistic treatment of the gates surface to more abstract scenes

The author had only seen this piece previously in photographs, so he watched it on a video on youtube. He had to wait five seconds before he could skip an ad; it reminded him that he was not looking at the work but at a film of the work. He started to think of how many of his favourite buildings he has never visited and only knows through photographs and drawings.

3.10. A Perfect Home: The Bridge Project

A Korean house is placed in the middle of a bridge; the ends of the bridge are not seen. The

다리는 유토피아적인 생각이다. 한국은 분단국가이며 미국 또한 어떤 면에서는 그러하다.

기술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모더니즘적 사고의 산물인 다리는 영웅적이다. 주택은 그곳에 이웃도 없이 홀로 놓여 있으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작품 자체가 영상 설치인 '완벽한 집'에는 어떤 텔레비전이 있을까?

3.11. 틈새 집

이 작품은 리버풀 비엔날레(Liverpool Biennale)의 의뢰작을 위한 제안서를 보여주는 드로잉이다. 전통 한옥이 두 빌딩 사이에 공중에 뜬 채로 끼여있다." 끼인 한옥의 한 쪽 건물은 흰 색이고 다른 쪽은 붉은 벽돌 건물이며 둘 다 견고하고 실용적인 19세기 유럽 산업 건축을 보여준다. 한옥은 양쪽 이웃들 사이에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끼어 있으며 흰 건물에는 '당신은 이웃을 좋아합니까?' 등의 글귀가 쓰여있다. 그 바로 위 문구는 '이 도시에는 제곱 킬로미터 당 3951명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준다. 서울에는 제곱 킬로미터 당 17,289명의 사람이 있다."

4.0. 부록 (주석)

1. 이 제목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저서 «천 개의 고원» (Athlon Press, 1987) 중 한 장인 '늑대는 한 마리인가 여러 마리인가?'에서 적게나마 영감을 받은 것이다.
2. 이 글을 시작할 당시 필자는 서도호의 작업을 몇 개 보지 못한 상태여서 인터넷으로 그의 작품에 대한 자료와 이미지를 조사했다. 이후 '공식적인' 이미지와 정보를 받은 뒤에도 인터넷을 계속 이용했는데, 이는 실제로 보지 못한 것에 대해 글을 쓴다는 행위에 내재해 있는 전이(displacement)의 개념이 흥미로웠기 때문이다.
3. 건축사 자격증 번호 061842J. 필자는 런던 그리니치 대학교 건축디자인 학과에서 학과장을 맡고 있다.
4. Robin Evans, "Translations from Drawing to Building," *Translations from Drawing to Building and Other Essays*, Architectural Association, 1997.
5. Adele Cygelman, "Architecture on the Edge," *Orange Coast Magazine* (August 1998, pp. 102-103)의 프랭크 게리 인용 부분 참고.

house is the traditional Korean house. We find out that the bridge stretches from Korea to the US and would require extraordinary levels of technology and materials. The bridge is a Utopian idea since bridges unite and bring things together. Korea is a divided country and in its way so is the US.

The bridge is heroic, a modernist idea of engineering solving a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The house sits there alone; it has no neighbours and it is difficult to know how it is serviced

The piece itself is a video installation; what kind of TV does the Perfect Home have?

3.11. Bridging Home

The piece is a drawing that shows the proposal for the installation that was commissioned for the Liverpool Biennale.¹⁶ A traditional Korean house has been parachuted into the gap between two buildings and is suspended in mid-air. One of the adjoining buildings is painted white and the other is red brick. They are both solid utilitarian examples of 19th century European industrial architecture. The Korean House sits uncomfortably with its neighbours, deliberately so, and the white building has a number of slogans painted onto it that asks "Do You Like Your Neighbours?" The slogan above tells us that "There are 3,951 People for Every km² in this City," in Seoul there are 17,289 people for every km².¹⁷

4.0. Notes

1. The title is loosely inspired by Deleuze and Guattari's "One or Several Wolves" from *One Thousand Plateaus*, London, Athlone Press, 1987.
2. At the time I started writing this piece I had only seen a few of Do Ho Suh's works, so I initially used internet sources to obtain images and material on Do Ho's work. Even when I received "official" images and information I carried on looking at the internet as I was interested in the displacement involved in writing about something I had not actually seen.
3. ARB registration number 061842J. I am Academic Leader in Architectural Design at the University of Greenwich, London.
4. Evans, "Translations From Drawing To Building" in *Translations From Drawing To Building and Other Essays*, Architectural Association, 1997.

6. 마르셀 뒤샹, 〈분수〉, 1917.
7. 필자는 구글 스트리트 뷰(Street View)를 이용하여 이 장소들을 돌아보았는데 서도호의 재현과 스트리트 뷰를 이용하여 어딘가를 방문한다는 것이 서로의 반전(inversion)으로 작용한다는 흥미로운 발견을 했다. 스트리트 뷰는 과도한 정보로, 서도호의 조각은 정보의 제한으로 각각 현실을 재현하는 듯한 환영을 만든다.
8. Anthony Vidler, *The Architectural Uncanny* (Cambridge: The MIT Press, 1994) 참조.
9. 필자의 가족이 살던 그레이즈 에섹스의 주택에서 1973년 12월 23일 일요일 오후 1시경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당시 필자는 10살이었다. 필자는 그날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며 어떤 방들에 대한 필자의 기억은 그 날에 고정되어 있다. 필자는 집(home)이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않는다.
10.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을 향하여〉 (1923) 참조.
11. Dan Graham, *Homes for America*, 1965.
12. 웨스트 22번가에 있는 주소로 찾아가 보았다. 눈부신 햇살 아래 멋진 4층짜리 건물이 서 있었고 앞에는 빨간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나는 정확한 주소에 가지 못하고 346번지와 350번지 사이에 어정쩡하게 있었다. 나는 이 견고한 부동산과 거의 12년 전에 서펜타인 갤러리에서 본 투명하고 유령 같은 설치 작품을 연관시켜 보려고 노력한다.
13. '서울 집'의 실제 장소에 가보니, 가파른 언덕에 세워져 있었고 길에서는 이 주택이 전통 한옥 건축임을 알려주는 정도 밖에 보이지 않았다. 주택은 현대적인 건물로 둘러싸여 있었고 언덕 위쪽으로는 새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었다. 인근 지역은 부유해 보였으나 확인할 수 없었고, 주변에 비슷한 한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14. '청사진'이란 용어는 그 제작 과정보다는 결과적인 드로잉을 일컫는 말이 되었지만, 〈청사진〉은 감광성 철 화합물을 사용하여 건축 드로잉과 기술적 드로잉을 복사하는 과정을 토대로 한 작품이다.
15. 〈별종별〉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샌디에고 내 제이콥스 공대의 의뢰로 제작한 작품의 이름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작은 집이 모더니즘 양식의 커다란 교육관 모서리에 얹혀 있다. 집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 기하학적 구조는 교육관의 구조적
5. Frank Gehry quoted in Adele Cygelman, "Architecture On the Edge," *Orange Coast Magazine* (August 1985): pp. 102-103.
6. Marcel Duchamp, *Fountain*, 1917
7. The author used Google Street View to visit these locations and there is an interesting relationship between Do Ho's re-constructions of his various homes and visiting somewhere through Street View, in that they operate as inversions of each other. While both create the illusion of representing reality, Street View does it through an excess of information while Do Ho's sculpture does it through the reduction of information.
8. See Anthony Vidler, *The Architectural Uncanny*, Cambridge: MIT Press, 1994.
9. On Sunday 23rd December 1973 at around 1.00pm my mother died in the house where my family lived in Grays Essex. I was 10 years old. I think I can remember everything about that day, and my memories of certain rooms seem fixed on that day. I never use the word home.
10. See Le Corbusier, *Vers Une Architecture*, 1923.
11. Dan Graham, *Homes For America*, 1965.
12. I go to the address on West 22nd. I'm outside in bright sunshine; it's a nice four-storey house, and there is a red car outside. I cannot get directly in front as I am caught between 346 and 350. I try to make the connection between this solid piece of real-estate and the diaphanous and ghostly installation that I saw at the Serpentine Gallery nearly twelve years ago.
13. I go to the Seoul Home, it is set on a steep hillside, and the house is not visible from the road but the signature signs of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are visible. The house is surrounded by modern development and further up the hill more buildings are being built. The neighbourhood looks quite affluent but it is difficult to say. There are very few other examples of traditional Korean houses in the area.
14. Blueprint is a play on the process by which architectural and technical drawings were reproduced through the use of photosensitive ferric compounds, though *Blueprint* came to stand in for the drawings themselves rather than process.

그리드와 병치되도록 회전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작품은 매우 혼란스러운 느낌을 준다. 전통적으로 보이는 그 집은 콘크리트 기초 위에 놓인 철골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길보기보다 교육관과 많이 비슷하다.

16. 이 작품이 설치되었던 리버풀의 듀크 거리에 갔다. 그 곳은 개발되어 고급 주택화와 커피숍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많은 구획들이 임시 칸막이로 막혀 있고 '방 있음' 표시가 곳곳에 눈에 띈다. 예술가들은 도시 지역활성화의 징표로 이목을 끌어야 한다는 요청을 종종 받는다. 예술은 특히 도심 지역 부동산 투기의 선봉이다. (맨해튼의 로어미스트사이드나 런던의 이스트엔드를 보라.) 영국에서 주택은 주거지보다는 투자의 의미가 강해졌고 영국 경제는 소유권의 기득 이익과 이윤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영국인의 인식처는 그의 모기지인 것이다.
17. 국토연구원이 발행한 서울 인구밀도 통계 (www.krihs.re.kr).

닉 클리어

그리니치 대학교 건축 디자인학과 학과장

15. *Fallen Star* is also the name of a piece that was commissioned by the UCSD, Jacobs School of Engineering: A small traditional house sits on the edge of a large modernist education building, it is tilted up at an angle and its geometry is rotated in juxtaposition to the structural grid of the education building. The overall effect is deliberately disorientating. While it looks traditional the house is made of a steel frame and is placed on a concrete base, it is actually more like its host than its appearances suggest.

16. I go to Duke Street, Liverpool where the piece had been sited. The area is in the process of being developed, gentrified, cappuccinoed. Many of the plots have boarded up fronts, and there are lots of To-Let signs. Often as a marker for urban regeneration artists will be asked to create a "buzz"; art is the vanguard for property speculation especially in inner city areas—look at the Lower East side in Manhattan or the East End of London. In the United Kingdom the house has become more investment than habitat, and the UK economy is directed by the vested interests and interest rates of property ownership. An Englishman's mortgage is his castle.

17. Seoul Population Density statistic from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www.krihs.re.kr).

Nic Clear

Academic Leader, Architectural Design,
University of Greenwich